

2026년 장춘한국인(상)회 통역봉사단 출범

재장춘 7개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로 통역봉사단 결성, 중한 량국 교류의 가교 역할 수행



3월 28일, 2026년 장춘한국인(상)회 통역봉사단 발대식이 장춘 대화미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장춘지역내 중한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 현장에서 활약할 우수한 통역 인재들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자리로 다양한 중한 교류의 현장에서 고품질 서비스 통역으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발대식에는 길림은행, KOTRA 장춘무역관, 흥기자동차, 길림외국어대학, 장춘광화학원, 장춘직업기술대학, 장춘리공대학,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길림재경대학 등 관련 분야 교수, 전문가, 학생 등 총 65명이 참가했다.

발대식은 사회를 맡은 장춘시한국

류학생총회 회장이자 장춘한국인(상)회 부회장인 강동훈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모든 래빈과 지도교수, 그리고 통역봉사단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진행될 통합 봉사단 행사의 시작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춘한국인(상)회 우경제 회장은 환영사에서 "통역봉사단은 장춘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 기업, 개인 사업가 등에 문화, 경제, 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한 교류의 '윙환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국이 실력 향상에 힘써 고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며 재장춘 7개 대학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로 통역봉사단을 결성하게 된 기쁨을 전했다.

축사에서 길림은행 한상현 부행장은 "이제 정부 출범과 중한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량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중요한 시점에 여러 젊은 통역 인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중국어와 한국어 능력은 량국 국민간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장춘한국인(상)회 최수현 명예교문이 오랜 장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당부하는 진심어린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영상 시청에 이어 장춘한국인(상)회 부회장 한유영이 2026년 통역봉사단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장춘한국인(상)회 주최의 중한 기업인 포럼 및 단오절 행사, 지역 정부기관과의 협력 행사, KOTRA 장춘무역관 주관의 무역박람회 및 포럼 등 봉사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통역봉사단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길림외국어대학(9명), 장춘광화학원(11명), 장춘리공대학(5명), 길림대학(5명), 장춘직업기술대학(5명), 길림재경대학(2명) 및 길림대학과 동북사범대학의 한국인 류학생 각각 9명과 2명 등 7개 대학에서 선발된 48명의 중한 량국 대학생들이 우경제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앞으로의 힘찬 활동을 위한 시작을 알렸다.

임명식후 전체 봉사단원 선서가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며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장춘한국인(상)회 통역봉사단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각종 행사 현장에서 정확한 통역과 문화적 리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중한 량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명준기자

로인뢰봉반, 영동촌서 청명절 련사 추모 활동



4월 4일, 청명을 앞두고 연길로인뢰봉반과 룡정시 덕신항 영동촌당지부는 련합 추모 행사를 조직했다. 연길로인뢰봉반의 김희숙(76세)은 영동촌에서 태어났다. 촌의 련사기념비에는 김희숙의 삼촌 세분과 둘째오빠의 영명이 가지런히 새겨져있다.

올해 청명 뉘봉반은 특별히 이곳을 선정, 련사들의 고향을 지키며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해나가는 촌당지부와 손잡고 선렬들을 추모하게 되었다.

생화를 진정하고 이어 추모의 술을 땅에 부은 뒤 사학자로 불리는 룡정시의 리광평선생이 덕신항의 홍색이아기와 함께 1933년 2월에 발생한 영동촌 참안도 소개하여 련사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촌당지부 서기 류백넌은 "선렬들이 물려준 이 삶의 터전을 영원히

부유한 고장으로 잘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고 연길로인뢰봉반의 정주와 반장도 "선렬들의 덕분에 우리 로인들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 홍색유전자를 전승하는 데 로후를 헌신하자."고 동원했다.

련사 유가족 김희숙로인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 조카들과 함께 련사친인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대대손손 근분을 잊지 않고 뉘봉정신으로 힘껏 기여하면서 당과 정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길로인뢰봉반 봉사자들 중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나선 분들도 있었지만 "련사들을 추모하며 홍색유전자를 잇는 이런 행사야말로 로후의 보람이 큰 향수"라며 감수를 전했다.

추모객들은 련사기념비 주변의 푸른 소나무에 가슴에 달았던 흰꽃을 하나씩 매달며 선렬들을 추모했다.

/ 박철원특약기자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청명 련사 추모' 주제 활동 전개

4월 1일,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는 공청단장백현위, 중소학교 학생대표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명 련사 추모' 주제 교양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련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전 9시, 정원이 혁명련사기념비 앞에 엄숙히 정렬했다.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 대표가 기념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선렬들에게 화환을 진정하고 민족독립과 인민해방을 위해 영용히 희생된 혁명선렬들을 깊이 추모했다. 이어 경찰 대표는 임당선서를 다시 되새기며 선렬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련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은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추모식이 끝난 뒤 경찰들은 정렬해 천천히 영묘를 앞으로 이동하여 하나하나의 이름을 눈으로 되새겼다. "우리가 지키는 국문은 선렬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강산입니다. 저는 실제 행동으로 영령을 위로하며 조국의 매 한치 땅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경찰 소망이 말했다.

이어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경찰들은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을 인

솔하여 국문 아래에서 '계비 글자 덧칠' 활동을 진행했다. "계비는 국가 령도 수권의 상징입니다..." 경찰들의 설명 속에 자원봉사자들은 '중국'이라는 글자와 번호를 조심스럽게 다시 칠했다. 한획 한획에 담긴 것은 '맑고도 순수한 사랑, 오직 중국을 위하여'라는 확고한 신념이었다.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리씨 학생은 "처음으로 직접 계비에 덧칠을 하면서 '조국이 가장 필요하는 곳으로 가자'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로서 실제 행동으로 변경에서 후회없는 청춘찬가를 써내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애국주의교양을 넘어 한차례의 깊이있는 정신적 세례였다.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는 앞으로도 주둔지역 각 부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애국주의교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둔지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변경의 안전과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새시대, 새 로정에서 이만관리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 계획이다.

/ 정현관기자, 통신원 천청정, 최창남

4월 1일! 장춘 시내 5만 7,000대 공유자전거 배치

지난 3월 30일, 장춘시도시관리국은 전 시 공유자전거가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투입,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된 투입 차량은 5만 7,000여대로 시민들의 녹색 출행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장춘시도시관리국 시용관리처(市容管理处) 2급 조사연구원 왕진량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공유자전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장춘시도시관리국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2월부터 공유자전거 운영 기업들을 조직해 운영전 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했다. 한편으로 공유자전거 주차 지점 6,000여곳을 재조사 및 최적화하여 현재 전 시에 총 1만 3,000여개의 공유자전거 주차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편민 출행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5만 7,000대의 투입 차량에 대해 전면적인 세척, 점검, 정비를 실시하도록 독촉하여 모든 차량이 최상의 상태로 운행에 투입되도록 했다.

공유자전거 투입 이후 무질서한 주차나 차량 적치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장춘시도시관리국은 운영 질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차량을 제때에 규범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도해 도시 미관과 교통질서



공유자전거를 지정된 지점에 옮기고 있는 일꾼

를 유지함으로써 공유자전거가 도시의 문명 풍경으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기업들도 정밀화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메이탄(美团) 공유자전거 장춘도시경리 주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거지역, 상권, 교통중추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이 정밀한 배치를 실시하고 격자화 운영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5-30 도시 보장 신속 대

응 체계'를 도입해 운영 인력이 5분내 대응, 30분내 현장 도착 및 처리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과 구역별 관리로 운영 질서를 확보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역, 오피스(写字楼) 밀집지역 등 핵심 구역의 공유자전거 배치를 강화하고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고장 차량은 즉시 회수, 정비한다. 동시에 정부, 기업, 련동 기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공동 관리도 추진한다.

할로 공유자전거(哈啰单车) 도시 운영 책임자 왕명양은 "복두위성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주차 지점과 온라인 앱을 정확히 련동함으로써 사용자가 지정 구역내에 반납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운영 구역을 격자화하여 주요 도로와 일반 도로를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전담 인력이 차량 배치와 관리를 담당한다. 운영 인력은 상시적인 동태 배치를 통해 무질서 주차를 방지하고 사회구역과 협력하여 문명적으로 사용할 것을 선전하여 봉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공유자전거는 도시 관리 수준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문명 자질도 반영한다. 장춘시도시관리국은 시민들에게 사용전 브레이크와 벨 등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문명적으로 주행할 것과 사용후에는 앱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유자전거가 도시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김명준기자

我们的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福 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河南舞阳 张新亮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